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느헤미야, 세션 6, 느헤미야 1-2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Tiberius Rata) 박사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6회기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좋아요, 느헤미야서를 펴세요. 우리는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이제 느헤미야서로 갑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대규모 예배에서 그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장은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1장에서 그가 어떻게 나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나쁜 소식을 느끼고, 어떻게 나쁜 소식을 나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가 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은 그가 예루살렘에 관한 나쁜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장 1절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제 제 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성 수산에 있었더니 2 내 형제 중 하나니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살아남고 도망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습니다. **삼**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살아남고 그 지방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 회복과 영적 회복을 본 에스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여, 우리는 또한 육체적, 영적 회복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예루살렘이 물리적으로 멸망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라 회고록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회고록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때때로 일인칭으로 기록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제20년은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의 통치 제20년을 말합니다. 2장 1절. 그곳에서 그는 기원전 521년에 처음으로 수사를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성벽은 모든 도시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있는 도시는 예루살렘만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나 여리고 같은 고대 도시를 보면 모두 방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7년 성벽이 파괴된 이후 기본적으로 누구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가 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재건하고 다음으로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벽은 재건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아직 완전한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니를 좋아해요.

하나니는 문제를 최소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Hanani는 문제를 보고할 만큼 충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백성의 필요에 마음이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나쁜 소식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의 에스라처럼 나도 이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는 것을 나약함의 표시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는 것은 관심과 염려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고, 바울도 우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사람들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관통하는 창문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의 영혼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경건한 지도자는 눈물을 흘릴 만큼 강합니다. 그러나 그는 울음과 기도를 결합시켰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이러한 기도 중 1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12개의 기도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나는 RA Torrey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 쓴 글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와 사역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제쳐두게 한 것은 마귀의 대작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 정복을 위해 교회의 조직과 교묘하게 고안된 기계를 확장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만약 그녀가 기도만 포기한다면요. 그는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으며 숨죽여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지 않는 한 주일학교도, 사회단체도, 대합창단도, 부흥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렬하고 끈질기게 믿는 기도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느헤미야는 기도와 관심을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와 금식의 중요성이 매우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5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존 크리스소스톰(John Chrysostom)은 금식이 왜 어려운지 알려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금식은 우리 안에 있는 것만큼이나 천사를 본받는 것이며, 현재의 사물을 정죄하는 것이며, 기도의 학교이며, 영혼의 자양분이며, 달의 굴레이며, 범위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 분노를 달래고, 자연의 폭풍을 진정시키고, 이성을 자극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육체를 어지럽히고, 밤의 오염을 쫓아내고, 두통을 없애줍니다. 단식을 통해 사람은 침착한 행동을 하고, 혀를 자유롭게 말하고,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느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향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말하기를 주여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내가 주의 종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주 앞에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죄를 지었습니다.

에즈라처럼 이득을 얻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곧 언약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단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8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범죄하면 내가 너를 만민 중에 흠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9**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 쫓겨난 자들이 맨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내가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거기 두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0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여호와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좋아요, 필요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 전에 그는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그 필요를 하나님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떼어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에서 그는 개인의 죄와 단체의 죄를 모두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겸손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재건의 필요성을 본 느헤미야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고 특히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그가 왕의 술 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매우 보수가 좋고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가 웨이터로 거기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문서에 따르면 왕의 술 관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포도주에 독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누구보다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뢰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재건을 돕기 위해 가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느헤미야의 태도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일종의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사역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여기 미국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종류의 마차를 사용하여 여행을 하던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고 싶어하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티켓을 사러갔습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어떤 종류의 티켓을 원하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1급, 2급, 3급? 그리고 이 남자는 마차를 보니 조금 놀랐고, 좌석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3등석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저렴하니까 3등석을 살게요. 자, 일등석 승객, 이등석 승객, 삼등석 승객이 모두 객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운전을 하다가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객차 운전기사가 객차를 멈추고, 일등석 승객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2등석 승객은 내려서 걸어간다. 3등석 승객은 내려서 밀면 된다.

보세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교회에는 삼등석 승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사역의 일을 밀어붙이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나누는 그의 민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사람 느헤미야가 재건 사업을 완수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에스라를 사용한 것처럼 그를 훌륭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장 초반에는 그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끄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챕터 2가 시작됩니다.

그때 나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살 나는 왕께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소서!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단순히 왕의 술 말은 관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매우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일하면 기뻐하는 것이 궁중 예절의 일부였습니다. 슬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얼굴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의 슬픔을
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하라고 말할 때, 다시 왕에게
연설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장 3절과 6절에서 그 사실을 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유대인
혈통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의 무덤을 언급함으로써 왕의 동정심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 롭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타서 폐허로 변해 있는 비극적인 그림을 그려서 말입니다.
월리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조상의 무덤에 대한 존경심이 보편적이었고,
특히 귀족과 왕족 사이에서 보편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레스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것을 다시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와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4-6절.

4 그러자 왕이 나에게 “네가 무엇을 청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 내가 왕께 아뢰되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사 내가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6** 왕이 나(그 옆에 앉은 왕후)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떠나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래서 왕께서는 내가 시간을 드린 후에 나를 보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느헤미야의 슬픈 마음 뒤에는 이루지 못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봅니다.

7 내가 왕께 아뢰되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강 건너편 지방의 방백들에게 조서를 허락하사 내가 유다에 이르기까지 통과하게 하옵소서 **8** 그리고 왕의 삼림 감독자 아삽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가 성전 견고한 문과 성벽과 내가 거주할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께서는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손이 누군가 위에 있다는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 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왕의 관대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관대함을 이용하여 관리들에게 이 편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은 창조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물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함께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라처럼 느헤미야도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9절, 10절,

9절 그런 다음 나는 강 건너편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군대 장관들과 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10**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복지를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듣고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

왕의 칙령이 있는 후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실제로 5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느헤미야의 여행이 하나님의 보호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2장 11절,

11절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12** 그러다가 나는 밤에 몇몇 남자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행할 일을 내 마음에 맡기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동물은 내가 탔던 동물 외에는 없었습니다. **13** 나는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샘과 분문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서 살펴보니 **14** 그런 다음 나는 샘문과 왕의 못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15** 그 밤에 내가 골짜기로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고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느니라. **16**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아직 유다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과 그 밖에 그 일을 하게 된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7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음이니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여 더 이상 조롱을 당하지 말자.” **18**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영원히 도우신 것과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설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해 손을 강하게 댔습니다.

이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리더의 훌륭한 징표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경우처럼 느헤미야도 반대합니다.

19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종이 된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말했습니다. 왕에게 반역하는 겁니까?”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예루살렘에서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 반대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니다. 처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야만이 반대자라고 들었으나 이제는 아랍 사람 게셈도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가 증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뛰어난 리더십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언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할 때가 있으나 그 다음 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느 것이 어느 것입니까? 글썄요, 언제 대답해야 할지, 언제 대답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리더들은 필요성을 파악해야 하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노동자들이 반대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신실하게 일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Tiberius Rata) 박사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6회기 느헤미야 1-2장입니다.